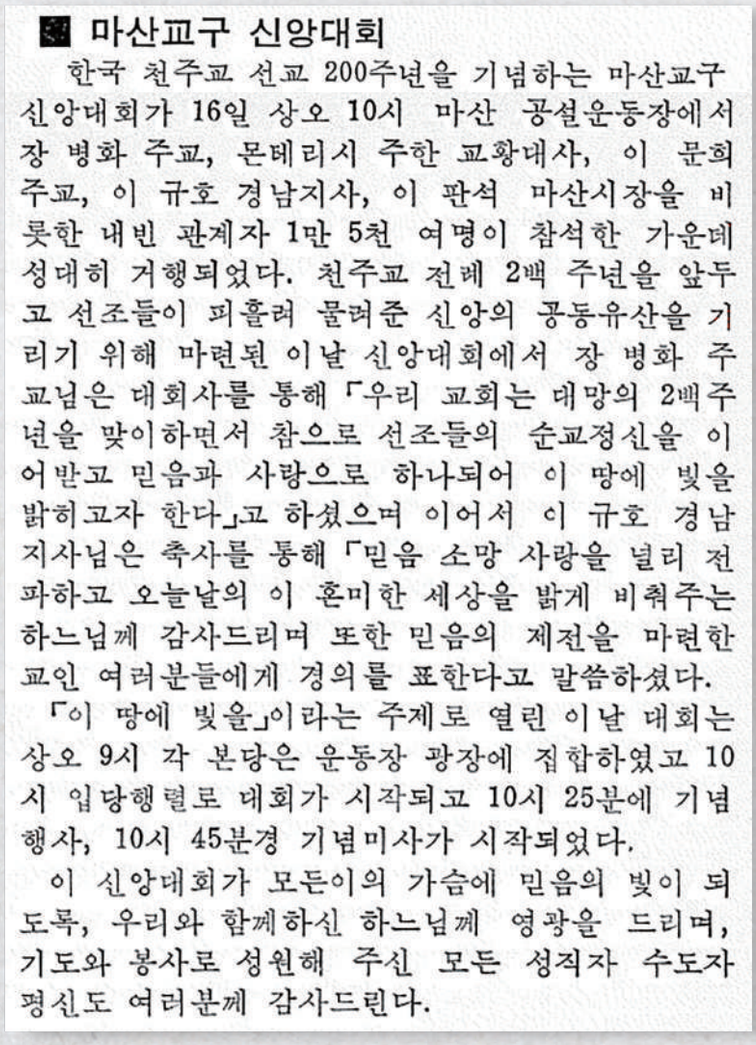
듣는 강론

가톨릭마산

연중 제22주일
2026년 8월 30일
제2737호

홈페이지 https://cathms.kr 채널 천주교마산교구 cpbc Radio FM 101.7MHz



■ 마산교구 신앙대회

한국 천주교 선교 200주년을 기념하는 마산교구 신앙대회가 16일 상오 10시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장 병화 주교, 몬테리시 주한 교황대사, 이 문희 주교, 이 규호 경남지사, 이 판석 마산시장을 비롯한 내빈 관계자 1만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천주교 전례 2백 주년을 앞두고 선조들이 피흘려 물려준 신앙의 공동유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신앙대회에서 장 병화 주교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교회는 대망의 2백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이 땅에 빛을 밝히고자 한다」고 하셨으며 이어서 이 규호 경남지사님은 축사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오늘날의 이 혼미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믿음의 제전을 마련한 교인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 빛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상오 9시 각 본당은 운동장 광장에 집합하였고 10시 입당행렬로 대회가 시작되고 10시 25분에 기념행사, 10시 45분경 기념미사가 시작되었다.

이 신앙대회가 모든이의 가슴에 믿음의 빛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도와 봉사로 성원해 주신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마산교구보 제513호 1983년 10월 30일 연중 제31주일

마산교구 신앙대회

한국 천주교 선교 200주년을 기념하는 마산교구 신앙대회가 16일(1983년 10월) 상오(오전) 10시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장병화 주교, 몬테리시 주한 교황대사, 이문희 주교, 이규호 경남지사, 이판석 마산시장을 비롯한 내빈 관계자 1만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천주교 전례 2백 주년을 앞두고 선조들이 피흘려 물려준 신앙의 공동유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신앙대회에서 장병화 주교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교회는 대망의 2백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이 땅에 빛을 밝히고자 한다」고 하셨으며 이어서 이규호 경남지사님은 축사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오늘날의 이 혼미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믿음의 제전을 마련한 교인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 빛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상오(오전) 9시 각 본당은 운동장 광장에 집합하였고 10시 입당행렬로 대회가 시작되고 10시 25분에 기념 행사, 10시 45분경 기념미사가 시작되었다. 이 신앙대회가 모든이의 가슴에 믿음의 빛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도와 봉사로 성원해 주신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교황님의 기도지향
도시 복음화

익명성과 고독이 만연한 대도시에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일 전례

WYD SEOUL 2027 MASAN
2027 세계청년대회 마산교구대회 D-333
2027. 7. 29~8. 2

제 1 독 서	예레 20,7–9
화 답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서	로마 12,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마태 16,21–27
영 성 체 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주님 앞, 사람 뒤

칠원본당 주임
전주홍 요셉 신부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 동굴에 이르러 밤을 지낼 때 주님의 말씀이 내렸는데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고, 불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 그것들이 다 지나간 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서야 엘리야는 동굴 밖으로 나와 주님 앞에 선다(1열왕 19,11-13).

>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 위치해야 한다. 주님 뒤에 자리 잡는다는 것. 곧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시간표를 앞세우지 않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거친 바람, 땅을 뒤흔드는 지진, 뜨거운 불속에는 주님이 아니 계셨지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속에는 주님이 계셨다는 말이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중요하다. 그것은 그저 달콤한 속삭임, 미풍과 같은 잔잔함 속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드러움이란 압도적인 힘으로 밟아눌러 산산이 가루가 된 것과 같은 부드러움이다. 조용함 역시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래서 온갖 잡스러움이 사라지고 열기가 꺼져버린 것과 같은 조용함을 뜻한다. 우리의 기대나 바람이 부서져 폐허와 같이 되고 나의 하고자 하는 열정에 찬물이 끼얹어져 말문이 막혀버리는 상황.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비로소 새로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무 또다시 불처럼 뜨겁게 앞서 나갔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이다. 직역하면 ‘내 뒤로 가라. 사탄’이다. 베드로의 원의와 열정이 아주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다. 바로 직전에 주님으로부터 베드로, 바위라는 새 이름을 받은 터라 더 극적이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신다. 당신을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 위치해야 한다. 주님 뒤에 자리 잡는다는 것. 곧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시간표를 앞세우지 않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곁눈질하며 이것저것 재는 곳에 주님은 안 계신다. 뒤돌아보며 지난 시간 붙잡는 곳에도 주님은 안 계신다. 오로지 주님은 내 앞에 계신다. 주님 앞, 사람 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

가톨릭문인회
이선향 안젤라 아동문학가

몇 해 전의 일이지만 잊을 수 없는 일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다.

기도하느라 휴대폰도 잘 받지 않는 자매님이 있다. 다급하게 연락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휴대폰을 받지 않아서 집 전화로 겨우 연결이 되었다.

우리 단체는 일 년에 한 번씩 우리의 형편대로 한 분을 선정하여 도움을 드렸는데 전화 연결된 그 자매님이 꼭 도와주어야 할 분이라며 또 한 분 추천하셨고 우리 단체의 형편상 그 한 분은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려고 전화를 드린 것이다.

"언니! 올해 도와주어야 할 자매님은 두 분인데 현재 우리가 준비된 돈은 두 분께 드리기에는 부족해요."

"형편이 그렇제? 그래도 우짜겠노? 도와드려야 된다."

"방법을 찾아봐도 어렵네요."

"얼마가 모자라노? 가만 내가 우리 집 할아버지 요양병원 가실 때 끼고 있던 반지를 다 주고 가셨는데, 그걸 판 돈을 성전 건립에 봉헌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돈을 보탤게"

순간 내 머릿속은 백지 같았다. 평소 늘 나눔터에 나온 남이 입던 옷을 입으시고 늘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남편의 반지 판 돈을 성전 건립에 봉헌하려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웃 돕기에 다 내시겠다는 그 말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고 한없이 부끄러웠다.

"반지 값이 200만 원이니까 다 보탤게."

"아니에요. 언니! 원래의 뜻대로 성전 건립에 봉헌하시고 꼭 도우시려면 백만 원만 하셔도 됩니다."

"성전 건립에 봉헌해도 좋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이웃이 있으니까."

그해 우리가 모은 돈과 그 자매님이 주신 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로 전해졌다. 그 자매님은 당신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고, 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 두었지만, 그 이야기는 묻히지 않고 자꾸만 새싹을 내밀 듯 내 가슴, 내 신앙의 밭에서 자주 고개를 내민다.

실천하지 않는, 살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한 발 일어서서 걸음마라도 해 보라고 손짓하시는 주님의 초대가 아닐까?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셨던 주님께서 아주 작지만 매일의 삶,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복음을 기억하고 함께 실천하자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이다. 힘겨움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봐야 살아 있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되려나?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이사 2,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요한 10,10 참조). 이 생명의 선물은 우리가 제자로서 받은 사명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받은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라는 부르심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묵상하고 그 생명을 지탱해 주는 지구를 소중히 여기도록 다시 한번 초대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창조주께 찬미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창조 세계의 조화로운 균형이 깨지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상처 입은 세상에서 터져 나오는 치유와 평화를 향한 하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생명의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14,27). 이 평화는 피상적인 평화도, 일시적인 평화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과 모든 인간에 대한 그분의 보살핌에서 샘솟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이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나라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이사 2,4)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변화되는 시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폭력과 전쟁에 힘을 쏟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정반대의 상황을 목격합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전쟁터를 넘어 멀리까지 퍼져 나갑니다. 전쟁은 목숨을 앗아가고, 가족을 해체하며, 수많은 강제 실향민을 만들고, 공포와 불의와 분열을 심화시킵니다(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77-82항 참조). 또한 전쟁은 후대까지 지속되는 사회적 생태적 파괴를 남깁니다. 게다가, 흔히 무장 분쟁과 환경 훼손이 서로 맞물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과 공기와 같은 필수 자원들을 오염시키며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또 다른 충돌을 빚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빈곤, 불평등, 새로운 사회적 긴장을 부채질합니다.

더 나아가, 전쟁은 생명의 그물 전체를 훼손하는 상처를 만들어 내어, 각 개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류 가족 전체와 맺는 더 넓은 관계망 그리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도 해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며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지구를 돌보는 데 실패하였음이 드러납니다. 이는 정치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실패이기도 합니다. 비뚤어진 욕망에 뿌리내리고 인간의 자유와 힘을 오용하는 데에 기초한 전쟁은 평화의 복음에 반대되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한 위기들은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은 충실성, 서로에 대한 사랑, 창조 세계의 선물에 대한 존중 안에서 열매 맺는 마음의 회개도 요구합니다. 폭력, 불의, 생태 훼손 등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격하는 불화는 단순히 체계나 구조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힌 더욱 근본적인 저 불균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사목 헌장, 10항). 실제로 인간의 마음은 가장 근본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타락한 우리 상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저 감정을 담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심, 곧 이성과 욕망, 의지와 양심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음에서, 우리 안에 서로 모순되어 존재하는 갈망들, 곧 사랑과 무관심, 진리와 허상,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씨름합니다(야고

1,14-15 참조). 그러므로, 전쟁의 상처와 지구의 훼손은 인간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분쟁들은 내적 불화와 분열을 외적으로 다양하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을 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건설하는 구조들도 이러한 무질서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일깨워 주셨듯이,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즉위 미사 강론, 2005.4.24.). 이는 우리 주변에서 무너진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서도 무너져 있음을 깨닫도록 촉구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구조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또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분쟁과 피조물 착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은 하나의 윤리적 문화적 위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계에 대한 감각의 상실, 지배하려는 욕망, 즉각적인 이익의 추구,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능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이사 2,4)고 한 예언자의 호소는 국가들을 향한 전망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해악을 생명으로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루려면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느님 은총에 협력하여 더 깊이 회심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욕망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덕행을 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가 없으면,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고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파괴를 위하여 사용되던 것들이 그 방향을 돌려,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굶주린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피조물을 보호하는 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태적 회개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결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217항 참조). 평화는 이처럼 마음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관계들, 공동체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도전들이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변화의 수단을 마련해 주십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는 전쟁의 무기 대신, 치유하고 화해하며 사랑의 문명을 건설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생태계', 곧 창조 세계, 인간관계, 인간 마음 그 자체의 생태계들을 지켜나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에너지들이 그 방향을 돌려, 온전한 인간 발전, 빈곤 척결, 인간 존엄성의 수호, 갈라진 민족들의 화해를 위하여 사용되는 세상을 떠올려 봅시다. 이러한 전망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진정한 도구는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진리, 대화, 인내, 선함, 정의, 자비, 이해, 배려,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 빚어지고 하느님 은총으로 살아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만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쇄신하며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평화를 추구하고 피조물을 돌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잠언 4,23 참조).

겸손과 믿음으로 이러한 임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 활동을 돕는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광야에서 낙원으로, 분열에서 친교로, 폭력에서 평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시어, 우리 시대에 참으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바꾸고, 복음의 약속을 세상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며, 창조 세계 전체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차게 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레오 14세 교황

교구장 동정

사회복지시설 방문
일시: 9월 1일(화) 10:00
장소: 샘동네 지역아동센터

가톨릭여성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9월 2일(수) 14:00
장소: 가톨릭여성회관

견진성사
일시: 9월 6일(주일) 10:30
장소: 석전동성당

교구/본당

교구 2학기 성경공부 개강 주간
일자: 9월 1일(화)
장소: 각 본당

성경 양성반 교육
일시: 9월 2일(수) 매주 13:00, 19:00
9월 3일(목) 매주 09:00
장소: 교구청

WYD 홍보 순회 묵주기도 및 미사
일시: 9월 2일(수) 19: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교구 생명위원회 회의
일시: 9월 2일(수) 16: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신앙대학
일시: 9월 5일(토), 6일(주일) 10:00
장소: 교구청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9월 5일(토) 16:00
장소: 거제성당

또래사도 재교육
일시: 9월 5일(토) 10:00~15:00
장소: 교구청

신학교 지원자 광주가톨릭대학교 방문
일자: 9월 5일(토)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일시: 9월 2일(수) 19: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제58차 선택주말
일정: 9월 4일(금)~6일(주일) 2박 3일
장소: 성혈 영성의집

루멘회 우포늪 둘레길 트레킹, 친교의시간
일자: 9월 5일(토)
장소: 우포늪 둘레길

레지아 평의회
일시: 9월 6일(주일) 14: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령기도회 낮피정
일시: 9월 7일(월) 13:00~17:00, 미사 15:40
장소: 남성동성당
강사: 박재찬 안셀모 신부(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주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평화
문의: 010·5247·9900

2026년 전례와 꽃 예술학교 2학기 수강생 모집
일정: 9월 7일~12월 21일 15주간
개강일: 9월 7일(월) 10:00 / 장소: 교구청
▶**기초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 기초과정 수료자, 2) 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 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
※ 3가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지도자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35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 봉사자과정 수료자, 2) 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2 이상
※ 1, 2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문의: 055·249·7061 성소국, 010·9088·4864

제236차 ME 주말
일시: 9월 11일(금) 19:00~13일(주일) 17: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지 3년 이상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접수: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및 신청: 010·4101·2602, 010·2999·0197

2026 평화순례
일자: 10월 5일(월)
순례지: 여순항쟁지
인원: 40명 / 신청: 9월 15일(화)까지
참가비: 2만 원(경남은행 504-07-0096809)
문의: 055·249·7168 민족화해위원회

기 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9. 19(토)~20(주일), 10. 17(토)~18(주일)
3박 4일: 9. 3(목)~6(주일), 10. 22(목)~25(주일)
4박 5일: 9. 9(수)~13(주일), 10. 5(월)~9(금)
8박 9일: 9. 9(수)~17(목), 10. 5(월)~13(화)
40일: 10. 1(목)~11. 9(월), 12. 14(월)~1. 22(금)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 상담심리)
원서접수: 9월 7일(월)~11일(금)까지
문의: 043·270·0100, 0109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올레바닷길: 9.17~19 / 억새길: 10.14~16
치유의 숲길: 11.6~8, 11.21~23, 12.4~6
추자도 성지순례: 9.11~14, 10.31~11.3, 11.14~17, 11.26~29, 12.7~9
면형의 집: 064·732·4702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8월 31일(월) 19:00	남성동성당	예수님은 누구신가	박대성 니콜라오(대전교구)	안찬모 이냐시오 신부	010·5247·9900
진주지구	8월 31일(월) 19:00	신안동성당(소성전)	하느님은 어디에	진동길 마리오 신부		010·3846·198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 20:00 기도회(대상: 10~40대)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9월 12일(토)~13일(주일)	서울 성북동 수도원	010·6608·3217	35세 이하 미혼 남성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2박3일 43만원
베트남, 마카오 3박5일 120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오사카, 도쿄, 아키타 3박4일 123만원
중국(상해, 북경, 마가자) 3박4일 125만원
김해공항도 출발 가능
마르코 투어 오완수 바오로 010·4239·192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사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릭스상가 1층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가톨릭문화원)
055·266·7010/070·5147·7010

성바오로 무인서원
마산교구청 내 1층
통신 판매 가능
010·9540·4592

청년 성서 에파타 제58차 창세기 연수

청년 성서 에파타(담당: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는 교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제58차 창세기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봉사자 13명과 연수생 16명이 함께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고 세상으로 파견되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파견미사는 교구장 이성효 리노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어 청년들에게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청년성령쇄신봉사회 1,000회 성령기도회 실시

청년성령쇄신봉사회(담당: 김진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는 8월 19일 가톨릭문화원 4층에서 1,000회 성령기도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 4월 12일에 창단된 청년성령쇄신봉사회는 교구 내 청년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어 기쁘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성령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성령기도회에는 교구 청년 45명이 참석하였으며, 미사와 성체 현시 및 강복, 묵상과 경배, 찬양 등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성령쇄신봉사회는 교구 청년들의 신앙 쇄신과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성령세미나와 성령기도회, 각종 파견 봉사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도록 돕고 있다.

제20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055·249·7072) (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우편접수
- 마 감: 9월 30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원고는 **A4용지에 11포인트**로 작성할 것

복자 신석복 마르코

압송길 도보순례4 2일차①

2일차: 밀양성당~청도성당 26km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 외 10명

압송길 도보순례 2일차, 아침 일찍 일어나 부상자가 없나 살펴보니 모두들 생생한 표정들이다. 어제저녁 취침 전 단단히 단도리를 한 모양이다. 밀양의 새벽 공기는 상쾌하였다. 우리는 밀양성당 아침 7시 주일미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성당에 도착했다. 강론 시간 신부님은 노란 조끼를 입은 낯선 사람들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린다. 은총의 순례길 되기를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둘째 날 걸어야 할 구간은 26km로 만만치 않는 거리이다. 복자께서 걸어간 옛길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밀양성당 앞을 지나 천문대를 통과하여 충혼탑에서 제사고개로 이어져 있었다. 충혼탑에서 이어지는 아리랑고개를 지나며 아랑의 동상 앞에서 우리는 밀양 아리랑을 다 함께 힘껏 불렀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본듯이 날 좀 보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억울하게 죽은 아랑의 애화를 부르며, 문득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신 복자 신석복 마르코 순교자의 애화를 떠올려본다. 포졸들에게 전 80냥을 주지 않아 압송 도중에 혹독한 매질을 당하며 걸어가신 그 길이 아리랑고갯길 안에 있을지 누가 알까?

근대문화유산 상동터널을 향해 걷고 있는 순례단

옛길은 아리랑고개를 지나 한적한 제사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제사고개의 설화는 소금장수 꿈 이야기이다. 길이 멀어 자기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귀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밀양시에서 제사고개에 표지판을 세워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생각해 보니 복자님께서도 소금장수를 하셨는데…

제사고개를 내려오면 길은 교동 교차로로 접어든다. 교동 교차로로 진입하는 옛길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약 900m 구간이다. 옛길은 왕복 4차선의 대로를 덮어쓴 차량이 많이 다니는 위험구간이 되었다. 교동 교차로에서 옛길은 다시 신안마을 방향으로 접어든다. 매년 5월이면 신안마을에서부터 '상동 명품 장미꽃길'이 조성되어 6.6km 이어져 장관을 이룬다.

장미꽃길 끝자락에 '빈지소'가 나온다. 밀양강 물줄기가 옥고산에 부딪치면서 큰 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빈지소'이다.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래톱 위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곳이다.